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었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인생의 가장 값높은 영광을 지니게 된 감격과 환희가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뚫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근로하는 인민의 삶과 투쟁을 행복과 명예의 단상에 긍지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원수님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남다른 자량과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축하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정부

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양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 의무를 앞에 놓고 나라의 큰일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견인 불발의 노력을 경주하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호의 전위, 새로운 혁신의 창조자로 핵심적, 선구자적역할을 다하고있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고결한 인생관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로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과 존경하는 리설주녀사를 모시고 만수대의사당 정원에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육체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의 제일재부로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어머니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일심전력, 결사분투해 나갈 충성과 보답의 맹세로 충만되어 있었다.

본사기자



연회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식술의 정을 나누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진 연회장에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기쁨이 차넘쳤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건강과 사업성과를 헤아려주시며 따뜻한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국가의 강대함은 위대한 인민의 진함없는 애국의 열정과 피타는 노력과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창조물과 사업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이 앞으로 조국과 인민이 긍지높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시대의 선구자로 영예로운 삶을 빛내여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 황 리 에 진 행

(5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상떨치는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불가항력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서사시로 펼쳐보인 공연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선군가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우리의 국기》로 끝났다.

축포란들이 편이러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일만경을 펼치었다.

부흥강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가 분출되는 경축행사장은 위대한 조국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연성과에 대한 축을 표시하시며 몸소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을 축하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열광의 환호성이 세차게 터져오르는

만수대기슭은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와 더불어 더욱더 끓어넘치는 애국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더 강대하고 더 찬란하게 시대우에 떠올릴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신념과 충천한 기개, 끝없는 희열로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장식한 성대한 경축행사는 성스러운 조국의 력사

가 새겨주는 백전백승의 진리를 피끓는 심장에 간직하고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세계가 보란듯이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신심드높이 펼쳐나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를 파시한 의의깊은 정치축전으로 청사에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